

노년 여성 기성복 치수분석 및 체형별 맞춤새에 관한 연구

이정임[†] · 주소영^{*}

배재대학교 의류패션학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Size Analysis of Ready-made Clothing for Elderly Women and Fit Evaluation according to their Body Type

Jeong Yim Lee[†] · So Young Joo^{*}

Division of Clothing & Textiles, Paichai University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CIE

(2005. 3. 30.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ize of ready-made clothing for elderly women and to evaluate their fit according to body type. Subjects were 33 women aged 60 and older, and they were classified by stature and drop index. The size of clothing which manufactured by four apparel brands were measured and compared with body size, and the size designation of four brands was compared. The questionnaire was carried out to subjects, and the size recognition and dissatisfaction with ready-made clothing were analyzed. The fitting test were carried out, and the subjects evaluated the fit of jackets and slacks of four brands. In the result of questionnaire, we found that subjects had little recognition about their clothing size. Subjects responded that they often felt dissatisfaction in their jacket length, sleeve length, shoulder width, bust girth, slacks, and waist girth. We found that each apparel brands had different sizing system and that even if the size designation of label was same, the clothing size was quite different. So the elderly women who didn't have so much knowledge about their own clothing size had a tendency to confuse with choosing proper clothing for themselves. In the wearer's evaluation,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unsatisfaction were certified in several body parts according to wearer's body type. Especially, the degree of unsatisfaction in the case of subjects of having very small stature or very small hip was higher than other body types. From the result, we certified that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ody type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elderly women with clothing.

Key words: Elderly women, Body type, Size of ready-made clothing, Fit, Satisfaction; 노년 여성, 체형, 기성복 치수, 맞춤새, 만족도

I. 서 론

체형에 적합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의복에

[†]Corresponding author

E-mail: ljyim@pcu.ac.kr

이 연구는 기술표준원의 2002년 경상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대한 요구는 연령에 관계없이 매우 당연하고 보편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년층은 신체적 변화와 경제력 및 사회활동의 감소로 인해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가 대체로 제한되고 있다. 의복이 상실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노년층에 있어 의복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나, 의복의 적합성은 어느 연령층보다 노

년층에게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복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노년층의 기성복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노년층의 기성복 불만족에 관한 연구(김희영, 1998; 남윤자, 유희숙, 1996; Goldsberry, E. et al., 1996)를 비롯하여, 심미성이 반영된 실버의류 개발을 위해 노년층의 디자인 선호도와 사이즈 적합도를 중심으로 노년기 의생활 실태를 조사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여혜린, 권영숙, 2005). 노년 여성 체형에 적합한 치수규격 개발을 위해 조진숙 외(1997)이 노년 여성의 재킷을 위한 상반신 치수규격을 제안하였으며, 유희숙(1998)은 노년 여성의 상·하의류 치수규격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은경(2001)은 노년 여성의 상체와 하체 체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의 및 하의 치수분포에 따른 의류치수규격을 제시하였으며, 기술표준원(2002, 2003)에서는 60대 이상 노년 여성 체형의 표준화를 위해 전국 329명의 노년 여성 체형을 분석하고 노년 여성만을 위한 여성복 치수규격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김수현, 이정란(2005)은 노년 남성의 드림에 따라 체형별 상의치수체계를 제안하였다.

기성복 불만족 관련 연구들은 주로 기성복 구매 및 착용 시 경험했던 착용자의 불만족 사항을 분석해 내어, 적합성 높은 기성복 제작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체형 분포를 갖는 노년 여성의 기성복 맞춤새에 대한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복 제품치수에 대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체형별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설영(2000)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들에 대해 체형을 드림과 관련이 있는 □형, △형, X형, ▽형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체형별 선호하는 맞춤새 및 체형에 따른 의복 부위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체형별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은 보통체형을 기준으로 제작되고 있으므로 보통 체형보다 키가 작거나 크거나 또는 엉덩이가 크거나 작은 소비자들의 경우 체형별로 기성복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노년 여성의 키와 드림 유형별 불만족 사항에 대한 정보는 실버의류 제품의 mass customi-zation 시스템에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 여성의 기성복에 대한 체형별 불만족 사항을 분석해 내기 위해 첫째, 기성복 치수 및 불만족 부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기성복의 제품치수를 조사하였으며, 셋째, 기성복에 대한 착의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기성복 제품치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착용자의 관점에서 체형별 불만족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노년 여성 기성복의 맞춤새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피험자

노년 여성 체형별로 기성복에 대한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KS K 0055 노년 여성의 여성복 치수규격(기술표준원, 2002)에 제시된 키와 드림에 의한 체형 유형별로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및 맞춤새 평가실험은 2002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었다.

2. 기성복 치수 및 불만족 부위 설문조사

노년 여성 피험자 3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성복 치수호칭 및 표기방법에 대한 인식, 재킷과 바지 구입 시 수선 부위와 불만족 부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3. 기성복 제품치수 분석

노년 여성을 타깃으로 포함하는 4개 실버존 기성복 브랜드의 재킷과 바지를 대상으로 제품치수를 분석하였다. 제품치수는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표 1> 체형별 피험자 분포

(단위: 명, %)

키 유형 드림 유형	135cm 이상 145cm 미만		145cm 이상 155cm 미만		155cm 이상 165cm 미만		합 계	
	-4cm 미만	1	(3.0)	4	(12.1)	2	(6.1)	7
-4cm 이상 4cm 미만	6	(18.2)	8	(24.3)	4	(12.1)	18	(54.6)
4cm 이상	3	(9.1)	3	(9.1)	2	(6.1)	8	(24.2)
합 계	10	(30.3)	15	(45.5)	8	(24.2)	33	(100.0)

사용하였다. 기성복의 치수호칭과 신체치수의 분포를 비교하였으며, 치수호칭과 제품치수, 신체치수와 제품치수를 각각 비교함으로써 기성복의 치수호칭 및 제품치수가 노년 여성의 체형 특성을 고려하여 전개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재킷은 테일러드 칼라에 버튼수가 2~3개인 기본적 형태이고 바지도 기본적 형태에 부리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스타일이다. 소재는 춘추용으로, 폴리에스테르 100%인 것을 선택하였다.

4. 기성복 맞춤새 평가

맞음새 평가방법은 피험자 33명이 4개 기성복 브랜드의 재킷과 바지를 각각 착용하고 신체 여러 부위의 맞춤새를 직접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내용<표 2>는 신체 여러 부위의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졌

으며, 평가척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신체 부위별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 및 만족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피험자의 키와 드롭 유형에 따라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 및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III. 연구결과

1. 기성복 치수 및 불만족 부위 설문조사

피험자들의 의복치수호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표 3>, 각 품목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약 50%가 대강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재킷이나 블라우스, 점퍼와 스웨터 등 외의, 상의류의 치수호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바지/스커트 등의 하의류 및 내의, 팬티의 치수호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30% 이

<표 2> 기성복 맞춤새에 대한 착용자 평가내용

품목	평가내용
재킷	1. 어깨 너비,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재킷 길이, 소매 길이, 허리선 위치 등 신체 7개 부위의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 (1점: 작다, 5점: 크다, 높다) 2. 신체 7개 부위의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 (1점: 불만족-5점: 만족)
바지	1. 허리 둘레, 배 둘레, 엉덩이 둘레, 밑위 길이, 넙다리 둘레, 바지 길이 등 신체 6개 부위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 (1점: 작다, 5점: 크다, 높다) 2. 신체 6개 부위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 (1점: 불만족-5점: 만족)

<표 3> 본인의 의복 치수호칭 인식

품목 치수호칭인식	재킷		바지/스커트		블라우스		점퍼/스웨터		내의		브래지어		팬티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전혀 알지 못한다	11	33.3	5	15.2	12	36.4	12	36.4	6	18.2	6	18.2	4	12.1
대강 알고있다	16	48.5	17	51.5	17	51.5	18	54.5	15	45.5	15	45.5	15	45.5
정확하게 알고있다	6	18.2	11	33.3	3	9.1	2	6.1	11	33.3	7	21.2	13	39.4
무응답	-	-	-	-	1	3.0	1	3.0	1	3.0	5	15.2	1	3.0
합 계	33	100.0	33	100.0	33	100.0	33	100.0	33	100.0	33	100.0	33	100.0

<표 4> 치수호칭 표기방법 인식

치수호칭 표기	빈도(명)	빈도 기준 백분율(%)	사례수 기준 백분율(%)	비고
55, 66, 77, 88··	23	67.6	74.2	주로 외의류
가슴 둘레-엉덩이 둘레-키 (허리 둘레-엉덩이 둘레)	3	8.8	9.7	바지/스커트는 허리 둘레 치수만으로 호칭 인식
S, M, L, XL··	3	8.8	9.7	
기타	5	14.7	16.1	속옷류는 90, 95로 인식
합 계	34	100.0	109.7	

N=31명, 복수응답가능

<표 5> 의복 구입 시 수선 여부

품목	재킷		바지/스커트		블라우스		점퍼/스웨터		내의		브래지어		팬티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수선한다	12	36.4	24	72.7	9	27.3	1	3.0						
수선하지 않는다	20	60.6	8	24.2	21	63.6	30	90.9	32	97.0	28	84.8	32	97.0
무응답	1	3.0	1	3.0	3	9.1	2	6.1	1	3.0	5	15.2	1	3.0
합계	33	100.0	33	100.0	33	100.0	33	100.0	33	100.0	33	100.0	33	100.0
주 수선 부위	소매 길이		. 길이		소매 길이		-		-		-		-	

<표 6> 재킷의 불만족 부위

신체 부위	빈도(명)	빈도 기준 백분율(%)	사례수 기준 백분율(%)
가슴 둘레	4	16.7	21.1
어깨 너비	5	20.8	26.3
소매 길이	6	25.0	31.6
재킷 길이	7	29.2	36.8
허리 둘레	1	4.2	5.3
엉덩이 둘레	1	4.2	5.3
합계	24	100.0	126.3

N=19명, 복수응답가능

상으로 위의, 상의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의복 치수호칭 표기방법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표 4>,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55, 66, 77 등과 같이 KS 구 호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바지와 스커트의 경우에 허리 둘레 치수로 의복 치수호칭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속옷류의 경우에는 90, 95 등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의복 구입 시 수선여부에 대해서는 <표 5>, 바지/스커트 등의 하의류에 대해 수선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2.7%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선율을 나타냈으며 기타 품목에서는 수선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수선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바지/스커트 등의 하의류는 주로 길이를 수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킷과 블라우스의 경우는 주로 소매 길이를 수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과 바지의 불만족 부위를 살펴본 결과 <표 6~표 7>, 재킷의 경우 옷 길이, 소매 길이, 어깨 너비, 가슴 둘레 등의 순으로 불만족을 나타냈고, 바지와 스커트의 경우에는 바지 길이와 허리 둘레에서 높은 불만족을 나타냈다.

<표 7> 바지의 불만족 부위

신체 부위	빈도(명)	빈도 기준 백분율(%)	사례수 기준 백분율(%)
허리 둘레	10	26.3	35.7
배 둘레	2	5.3	7.1
엉덩이 둘레	2	5.3	7.1
밑위 길이	4	10.5	14.3
바지 길이	17	44.7	60.7
다리부분의 여유	3	7.9	10.7
합계	38	100.0	135.7

N=28명, 복수응답가능

2. 기성복 제품치수 분석

노년 여성을 타깃으로 포함하는 4개 기성복 브랜드의 치수호칭별 재킷과 바지 제품치수 조사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현행 KS 의류치수규격에서는 의류제품의 치수호칭에 신체치수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매 시 자신의 신체치수를 제품의 치수호칭과 비교하여 선택한다. 신체치수를 기준으로 선택한 의류제품의 치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 8>에 나타난 재킷과 바지의 치수호칭을 기준으로 신체치수에 대한 커버율을 분석하였다(표 9~표 10). 노년 여성 329명을 측정된 기술표준원(2002)의 자료에 따르면 10% 이상의 높은 분포를 나타낸 가슴 둘레 구간은 88cm, 91cm, 94cm, 97cm, 100cm 구간인데, 브랜드A를 제외한 3개 브랜드에서 이들 구간에 포함되는 치수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브랜드A의 경우에는 5개 치수호칭 중 2개 호칭만이 10% 이상의 다빈도 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103cm, 106cm, 112cm 등의 3개 호칭이 다빈도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큰 가슴 둘레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같은 자료에 대해 허리 둘레

<표 8> 기성복 브랜드별 치수호칭 및 제품치수

(단위: cm)

브랜드	치수호칭		제품치수										
	재킷	바지	재킷							바지			
			가슴 둘레	허리 둘레	배 둘레	영덩이 둘레	등 길이	옷 길이	소매 길이	허리 둘레	배 둘레	영덩이 둘레	바지 길이
A	91-104-155	76-104	96.0	89.0	96.0	104.0	37.0	64.0	57.5	78.4	100.4	100.6	96.5
	97-110-160	82-110	101.0	94.0	100.4	109.0	38.0	66.0	58.0	84.0	104.0	106.0	97.5
	103-114-160	85-114	107.0	102.0	109.0	117.0	38.0	66.0	58.0	88.4	109.6	109.6	97.5
	106-120-165	91-120	108.0	104.0	113.0	120.0	38.0	66.5	58.0	92.4	112.6	112.6	97.5
	112-124-165	97-124	115.6	112.0	118.0	124.6	39.0	68.5	62.0	96.8	116.0	116.0	100.0
B	88-94-160	70-100	95.0	88.0	97.6	103.0	37.0	66.0	58.0	72.4	95.6	95.6	99.0
	91-100-165	79-104	102.0	94.0	102.0	109.0	37.3	67.0	58.0	81.0	104.0	104.0	99.0
	97-104-170	88-110	105.6	97.0	104.4	113.0	37.8	67.0	59.3	87.6	110.4	110.4	99.0
C	88-92-160	73-88	95.0	87.6	95.0	103.0	37.5	64.5	58.5	74.0	96.0	96.0	99.3
	91-94-165	76-90	99.6	94.0	101.2	108.0	37.5	66.5	59.0	80.0	101.4	101.4	99.3
	94-96-170	85-96	104.0	100.4	107.0	114.0	37.5	67.0	59.0	84.0	108.0	108.0	101.0
	100-106-170	88-98	109.0	106.4	114.0	122.0	37.5	67.0	60.0	89.2	112.6	112.6	101.0
D	85-90-155(85)	73-100(73)	94.0	87.2	94.0	102.0	35.5	61.5	58.0	73.0	94.0	94.0	97.5
	88-94-160(88)	76-104(76)	97.0	90.0	96.0	105.0	36.6	61.8	58.0	77.5	98.0	98.0	97.5
	91-96-165(91)	82-110(82)	100.6	95.2	103.0	109.6	38.0	63.5	58.5	82.6	103.6	103.6	97.5
	94-100-170(94)	85-112(85)	107.0	101.0	108.0	115.0	39.0	65.0	59.0	86.0	108.4	108.4	97.5
	97-104-170(97)	91-118(91)	113.0	110.0	116.0	120.0	39.0	65.0	60.0	94.0	111.6	111.6	97.5

분포를 분석한 결과 10% 이상의 높은 분포를 나타낸 허리 둘레 구간은 79cm, 82cm, 85cm, 88cm로 나타났는데, 4개 브랜드 모두 바지의 허리 둘레 치수호칭 중 2개 호칭만이 다빈도 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브랜드에 따라 다양한 치수호칭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성복의 치수호칭 전개 시 주요 부위 신체 치수의 다빈도 구간에 대한 고려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표 8>에서 가슴 둘레나 허리 둘레의 치수호칭이 동일한 경우라도 각 브랜드의 제품치수는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수호칭 체계와 별도로 부위별 제품치수가 전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킷의 가슴 둘레 호칭 91은 4개 브랜드에서 모두 전개되어 있는 치수호칭이지만, 브랜드에 따라 가슴 둘레 제품치수가 96cm, 102cm, 99.6cm, 100.6cm 등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가슴 둘레 호칭 91을 사용하는 경우 치수호칭과 제품치수의 차를 구한 결과<표 11>, 브랜드에 따라 가슴 둘레에서 5.0~9.6cm, 영덩이 둘레에서 0~14.0cm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치수호칭을 기준으로 제품치수에 대한 일관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기성복 재킷의 가슴 둘레 치수호칭과 신체치수의 분포 비교

가슴 둘레 구간(cm)	가슴 둘레 분포 (329명)	브랜드			
		A	B	C	D
70	2(0.6)				
73	1(0.3)				
76	4(1.2)				
79	6(1.8)				
82	13(4.0)				
85	20(6.1)				○
88	33(10.0)		○	○	○
91	60(18.2)	○	○	○	○
94	56(17.0)			○	○
97	52(15.8)	○	○		○
100	49(14.9)			○	
103	16(4.9)	○			
106	9(2.7)	○			
109	7(2.1)				
112		○			

○: 10% 이상의 분포를 나타낸 구간(60세 이상 노년 여성 329명 중

자료출처: 기술표준원. (2002).

<표 10> 기성복 바지의 허리 둘레 치수호칭과 신체 치수의 분포 비교

허리 둘레 구간 (cm)	허리 둘레 분포 (329명)	브랜드			
		A	B	C	D
61	2(0.6)				
64	2(0.6)				
67	5(1.5)				
70	15(4.6)		○		
73	21(6.4)			○	○
76	31(9.4)	○		○	○
79	49(14.9)		○		
82	47(14.3)	○			○
85	55(16.7)	○		○	○
88	48(14.6)		○	○	
91	27(8.2)	○			○
94	16(4.9)				
97	4(1.2)	○			
100	5(1.5)				
103					
106	2(0.6)				

□: 10% 이상의 분포를 나타낸 구간(60세 이상 노년 여성 329명 중
자료출처: 기술표준원. (2002).

<표 11> 치수호칭과 제품치수 비교 (단위: cm)

품목	브랜드	치수호칭		제품치수-치수호칭	
		가슴 둘레	엉덩이 둘레	가슴 둘레	엉덩이 둘레
재킷	A, B, C, D	91	104	5.0	0
			100	9.0	9.0
			94	8.6	14.0
			96	9.6	13.6
바지	A, C, D	76	104	2.4	-3.4
			90	4.0	2.4
			104	1.5	-6.0

재킷에서 브랜드별 제품치수의 차이는 등 길이, 재킷 길이, 소매 길이, 바지 길이 등의 길이 부위보다 둘레 부위에서 큰 편차를 나타냈으며, 특히 브랜드A의 경우 치수호칭 및 제품치수의 전개에서 다른 3개 브랜드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바지의 경우 허리 둘레 호칭 76에 대해 제품치수와 치수호칭의 차를 구한 결과, 브랜드에 따라 허리 둘레에서 1.5~4.0cm, 엉덩이 둘레에서 -6.0~2.4cm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브랜드 제품치수 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치수와 제품치수 비교를 위해 피험자 33명에 대해 직접 4개 브랜드에서 적합한 재킷 치수호칭을 선택하게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브랜드 재킷의 제품치수와 신체치수를 비교한 결과 33명 모두에서 브랜드별 제품치수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33명 중 1명의 경우를 예로 들어 <표 12>에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키 145.5cm, 가슴 둘레 90cm, 허리 둘레 79cm, 배 둘레가 95.7cm, 엉덩이 둘레가 94cm인 노년 여성 피험자가 자신의 신체에 적합한 재킷을 구매하고자 할 때 4개 브랜드에서 피험자 신체에 적합한 재킷을 선택한 결과, 브랜드A에서 재킷을 구매할 경우에 97-110-160을 선택해야 했으며, 브랜드B에서는 91-100-165를, 브랜드C에서는 94-96-170, 브랜드D에서는 91-96-165를 선택해야 했다. 브랜드에 따라 가슴 둘레 치수호칭이 91~97cm로 차이가 나 6cm의 편차를 가지며, 엉덩이 둘레는 14cm, 키는 10cm의 편차를 갖는다. 피험자가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선택한 각 브랜드 재킷의 제품치수를 피험자의 신체치수와 비교한 결과, 가슴 둘레에서 약 10.6~14.0cm, 허리 둘레에서 15.0~21.4cm, 배 둘레에서 4.7~11.3cm, 엉덩이 둘레에서 15.0~20.0cm의 여유분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브랜드별 제품치수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큰 편차는 33명 피험자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기성복 브랜드의 치수호칭 및 제품치

<표 12> 신체치수와 제품치수 비교

(단위: cm)

피험자 신체치수					브랜드별 치수호칭		제품치수-신체치수			
키	B	W	A	H			B	W	A	H
145.5	90.0	79.0	95.7	94.0	브랜드A	97-110-160	11.0	15.0	4.7	15.0
					브랜드B	91-100-165	12.0	15.0	6.3	15.0
					브랜드C	94-96-170	14.0	21.4	11.3	20.0
					브랜드D	91-96-165	10.6	16.2	7.3	15.6

피험자 신체치수 중 B: 가슴 둘레, W: 허리 둘레, A: 배 둘레, H: 엉덩이 둘레 임.

수의 전개에 신체치수 분포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치수호칭이 동일한 경우라도 브랜드마다 제품치수가 달라서 브랜드별 제품치수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브랜드에서는 이에 대해 목표집단의 특성에 따른 마케팅 전략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브랜드에 따라 각기 다른 치수호칭의 의복을 구입해야 하므로 적합한 의류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 특히 다양한 체형분포를 갖고 있으면서도 <표 3~표 4>

에서와 같이 자신의 신체치수 및 의류치수호칭에 대한 인식 및 정보가 부족한 노년 여성의 경우에는 체형에 적합한 의복 선택 시 판매원이나 타인에의 의존율을 높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3. 기성복 맞춤새 평가

노년 여성의 기성복에 대한 체형별 불만족 사항을 분석해 내기 위해 4개 브랜드의 기성복에 대한 착의

<표 13> 착용자의 키 유형에 따른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 및 만족도

크기 인식 및 만족도		키 유형	아주 작은 키 (135~145cm)	작은 키 (145~155cm)	보통 키 (155~165cm)	F값
재킷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	어깨 너비	3.91 A	3.92 A	3.57 B	4.402*
		가슴 둘레	3.42	3.43	3.25	1.307
		허리 둘레	3.02	3.12	3.10	0.388
		엉덩이 둘레	3.09	3.12	3.14	0.062
		재킷 길이	4.52 A	3.72 B	3.25 C	47.393***
		소매 길이	4.61 A	4.06 B	3.83 B	13.605***
		허리선 위치	2.48 B	2.55 B	2.75 A	3.510*
		평 균	3.51 A	3.45 A	3.30 B	3.251*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	어깨 너비	2.81 B	2.94 B	3.63 A	4.271*
		가슴 둘레	4.06	3.79	4.12	1.294
		허리 둘레	3.89	3.82	4.20	1.166
		엉덩이 둘레	3.79	3.97	4.29	1.766
		재킷 길이	1.81 C	3.16 B	4.27 A	37.846***
		소매 길이	1.63 B	2.53 A	3.02 A	10.894***
허리선 위치		3.02 B	3.40 B	4.16 A	8.836***	
평 균		3.61 B	3.60 B	3.99 A	3.516*	
바지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	허리 둘레	3.18	3.10	2.90	1.510
		배 둘레	3.18 A	3.06 A	2.78 B	4.243*
		엉덩이 둘레	3.22 A	3.35 A	2.84 B	7.960***
		밑위 길이	3.05 A	2.90 AB	2.69 B	4.399*
		넙다리 둘레	3.61 A	3.61 A	3.14 B	8.557***
		바지 길이	4.78 A	4.50 B	4.12 C	9.295***
		평 균	3.40 A	3.37 A	3.02 B	8.877***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	허리 둘레	3.80	3.75	3.94	0.259
		배 둘레	4.38	4.04	4.06	1.257
		엉덩이 둘레	4.25	3.91	4.12	1.229
		밑위 길이	4.45	4.11	4.08	1.545
		넙다리 둘레	3.90 B	3.48 B	4.54 A	9.003***
		바지 길이	1.36 B	1.73 AB	2.10 A	4.464*
		평 균	3.78	3.50	3.82	2.801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에 대해 서로 다른 알파벳으로 표기하였음(A>B>C).

*.01≤p<.05, **.001≤p<.01, ***p<.001

실험을 실시하고, 기성복 재킷과 바지의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과 만족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표 13>과 <표 14>에 체형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착용자의 키 유형에 따라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표 13>, 재킷에서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어깨 너비와 재킷 길이, 소매 길

이, 허리선 위치의 4항목이었으며, 4항목 모두 아주 작은 키 유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분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 <표 13>은 위의 4항목에 대해 아주 작은 키 유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특히 아주 작은 키 유형의 재킷 길이와 소매 길이 평균값은 2점 이하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아주 작은 키 유형을 위한 재킷 제작 시 특히 의복의 길이를

<표 14> 착용자의 드롭 유형에 따른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 및 만족도

크기 인식 및 만족도		드롭 유형(cm)	협이 작은 체형 (-4cm 미만)	보통 체형 (-4cm 이상 4cm 미만)	협이 큰 체형 (4cm 이상)	F값
재킷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	어깨 너비	3.73 B	3.78 B	4.15 A	5.156**
		가슴 둘레	3.24 B	3.40 AB	3.53 A	3.045*
		허리 둘레	2.98	3.00	3.16	1.321
		엉덩이 둘레	3.06	3.20	2.94	2.479
		재킷 길이	3.67	3.88	3.87	1.192
		소매 길이	3.84 B	4.25 A	4.19 A	3.927*
		허리선 위치	2.78 A	2.58 B	2.31 C	8.601***
		평 균	3.33	3.47	3.45	1.633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	어깨 너비	3.17 A	3.23 A	2.37 B	5.252**
		가슴 둘레	3.81	4.01	3.85	0.457
		허리 둘레	3.67	4.11	3.61	2.983
		엉덩이 둘레	3.83 AB	4.25 A	3.40 B	6.829**
		재킷 길이	3.23	2.89	3.26	1.168
		소매 길이	2.95 A	2.26 B	2.21 B	3.213*
바지	여유분에 대한 크기인식	허리선 위치	3.96 A	3.46 A	2.93 B	5.759**
		평 균	3.59	3.76	3.54	1.361
		허리 둘레	2.83 B	3.09 AB	3.34 A	4.198*
		배 둘레	2.83 B	3.08 AB	3.15 A	2.721
		엉덩이 둘레	3.35	3.15	3.21	1.203
		밑위 길이	2.87	2.94	2.80	0.905
		넙다리 부위	3.71 A	3.49 AB	3.36 B	2.982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	바지 길이	4.29	4.56	4.54	2.046
		평균	3.23	3.33	3.32	0.523
		허리 둘레	3.10 B	3.96 A	4.11 A	7.223***
		배 둘레	3.13 B	4.48 A	4.22 A	19.700**
		엉덩이 둘레	2.85 B	4.46 A	4.13 A	29.518***
		밑위 길이	3.61 B	4.40 A	4.24 A	6.695**
		넙다리 둘레	3.15 B	3.99 A	4.07 A	6.478**
바지 길이	1.77	1.66	1.82	0.289		
평 균	2.87 B	3.87 A	3.78 A	25.067***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에 대해 서로 다른 알파벳으로 표기하였음(A>B>C).

*.01 ≤ p < .05, **.001 ≤ p < .01, ***p < .001

체형의 프로포션에 적합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바지에서 착용자의 키 유형에 따라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표 13>은 허리 둘레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아주 작은 키 유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분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키 유형에 따라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난 항목<표 13>은 넙다리 둘레와 바지 길이의 2항목으로, 보통 키 유형의 만족도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은 키 및 아주 작은 키 유형을 위한 바지 제작 시, 넙다리 둘레의 여유 및 바지 길이를 체형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 둘레와 엉덩이 둘레, 밑위 길이의 경우, 키 유형에 따라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에 차이를 보이면서도 여유분 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착용자의 키 유형에 따라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과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재킷과 바지 모두에서 보통 키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항목이 많이 나타났으며, 아주 작은 키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불만족을 나타내는 항목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키 유형에 따라서는 넙다리 둘레를 제외하고 재킷과 바지의 기타 둘레 항목에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 않았다.

재킷에서 착용자의 드롭 유형에 따라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에 유의차를 나타낸 항목<표 14>는 4개 항목으로 힙이 작은 체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어깨 너비와 가슴 둘레, 소매 길이의 여유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힙이 큰 유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허리선 위치를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는 힙이 큰 유형이 어깨 너비와 엉덩이 둘레, 소매 길이의 여유분 및 허리선 위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힙이 큰 유형을 위한 재킷 제작 시 어깨 너비의 여유분을 적게 설정하고 허리선 위치를 약간 높이는 등의 체형특성 반영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슴 둘레 부위에서는 힙이 작은 유형이 힙이 큰 유형에 비해 여유분을 적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여유분 만족도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엉덩이 둘레 부위에서는 드롭 유형 간 크기 인식에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힙이 큰 유형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바지에서 드롭 유형에 따라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에 유의차를 나타낸 항목은 3항목<표 14>로, 힙이 작은 유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허리 둘레와 배 둘레의 여유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넙다리 둘레의 여유분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는 바지 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힙이 작은 체형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크기 인식에서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은 엉덩이 둘레와 밑위 길이는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과 같이 착용자의 드롭 유형에 따라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과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재킷의 경우 힙이 큰 체형에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항목이 많이 나타났으며, 바지의 경우에는 힙이 작은 체형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항목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년 여성의 의류제품에 대한 맞춤새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성복의 치수호칭 및 제품치수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체형별 불만족 사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4개 실버존 브랜드 기성복의 제품치수를 분석하고 기성복에 대한 착의실험을 실시하였다.

노년 여성 피험자들은 의복 치수호칭 및 일반적인 치수호칭 표기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으며, 바지/스커트 등 하의류의 수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의 불만족 부위는 옷 길이, 소매 길이, 어깨 너비, 가슴 둘레 등이었으며 바지와 스커트의 경우에는 바지 길이와 허리 둘레에서 높은 불만족을 나타냈다.

4개 브랜드 재킷과 바지의 치수호칭과 제품치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성복 치수호칭 및 제품치수의 전개에 신체치수의 분포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치수호칭이 동일한 경우라도 각 브랜드의 제품치수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치수호칭 체계와 별도로 부위별 제품치수가 전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치수 전개 현황은 다양한 체형 분포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체치수 및 의류치수호칭에 대한 인식 및 정보가 부족한 노년 여성의 경우에 체형에 적합한 의복 선택 시 판매원이나 타인에의 의존율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실버 의류제품 생산 시에는 치수

호칭 표기에서 이해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보완적인 치수표기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착용자의 키 유형에 따라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재킷의 경우 어깨 너비와 재킷 길이, 소매 길이, 허리선 위치의 4항목에 대해 아주 작은 키 유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분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는 위의 4항목에 대해 아주 작은 키 유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바지에서 허리 둘레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아주 작은 키 유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분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보통 키 유형이 넙다리 둘레와 바지 길이에서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키 유형에 따라 재킷과 바지의 둘레 항목에서는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착용자의 드롭 유형에 따라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재킷의 경우 헐이 작은 체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어깨 너비와 가슴 둘레, 소매 길이의 여유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헐이 큰 유형이 허리선 위치를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는 헐이 큰 유형이 어깨 너비와 엉덩이 둘레, 소매 길이의 여유분 및 허리선 위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바지에서는 헐이 작은 체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허리 둘레와 배 둘레의 여유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넙다리 둘레의 여유분은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는 바지 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헐이 작은 체형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다. 노년 여성의 의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형별로 여유분 만족도에 유의차를 나타낸 항목들에 대해 패턴 제작 시 체형 특성이 고려된 치수와 여유분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류제품 구매 시 수선 부위로 길이 수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키가 아주 작은 체형에서

불만족 항목이 많이 나타난 것은 기성복에서 적용하고 있는 너비에 대한 길이의 프로포션이 노년 체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적합성 높은 노년 여성 대상 의복 개발을 위해서는 노년층의 체형 및 프로포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체형별 맞춤새 분석 및 패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성장하고 있는 실버마켓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실버 전용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술표준원. (2002). 노년 여성을 위한 체형 표준화 정상연구 보고집(I).
- 기술표준원. (2003). 노년 여성을 위한 체형 표준화 정상연구 보고집(II).
- 김수현, 이정란. (2005). 노년 남성의 체형별 상의 치수 체계. *한국의류학회지*, 29(1), 177-188.
- 김희영. (1998). 노년 남성의 의복착용 실태조사-체형 변화와 기성복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2), 193-202.
- 남윤자, 유희숙. (1996). 노인계층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제1보)-노년 여성의 연령 및 체형별 신체 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만족도-. *한국의류학회지*, 20(6), 962-974.
- 여해린, 권영숙. (2005). 노년기 의생활 실태 조사. *한국의류학회지*, 29(1), 177-188.
- 오설영. (2000). 여성복 브랜드의 치수설정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경. (2001). 노년 여성의 체형 분석 및 의류치수규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희숙. (1998). 노년 여성의 체형별 의복치수와 그레이딩 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진숙, 박상희, 최정옥. (1997). 노인 여성의 신체 특성에 따른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5), 835-844.
- 한국산업규격. (1999). 여성복의 치수. KS K 0051.
- 한국산업규격. (2002). 노년 여성의 여성복 치수. KS K 0055.
- Goldsberry, E., Shim, S., & Reich, N. (1996). Women 55 years and older: Part II. Overall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 121-132.